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등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심 은 주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등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심 은 주

인 준 서

심은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미술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되었다. 미술은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종교적·사회적 사상 등을 표현하는 조형 언어의 기능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술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러한 미술 문화는 전통의 흐름 속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변화, 발전해 나가며 다양한 미술 문화의 경험과 안목은 우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고대 문명사회부터 우리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한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미술품으로 제작하는 기록적 기능을 중요시하였다. 재현하고 기록해 놓은 미술품은 다른 문화보다 각 시대별 제반 양상과 역사적 변천상황을 밝히고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는 사실 때문에 미술자료에 먼저 주목하며, 이에 따라 기록적 기능을 가진 미술의 가치를 높이 여긴다.

본 연구는 재현적·기록적 기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미술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그 속에서 표현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미술 표현·감상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미술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시대·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술교육 시 표현·감상활동을 통합적으로 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Ⅲ장에서는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를 통해 사실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사조의 의미를 제시하고 이러한 미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탐색한 후 각 사조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시한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두 회화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주성 및 주체성과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풍습 등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나 미의식, 해학성 등을 알게 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미술수업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매체와 방법을 활용하는 교수-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다.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의 비교·감상을 통하여 학생들과 토의를 하고, 이를 통해 두 사조의 한 작품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표현활동을 해본다. 이후 응용표현 및 역할극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활동을 해보고, 감상 및 비평을 해보는 학습지도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정리와 함께 창조적, 개성적이며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미술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미술의 역할과 기능	5
2. 미술과 시대·사회와의 관계	8
3. 표현활동과 미술 감상교육	10
III.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이해	13
1. 조선후기 풍속화	13
1) 풍속화의 의미	13
2)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	14
3) 풍속화의 특징	17
2. 19세기 사실주의 회화	19
1) 사실주의의 의미	19
2)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	20
3) 사실주의의 특징	24
3. 대표작가 및 작품 고찰	26

IV.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교육적 가치	35
1.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35
2.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교육적 가치	37
V. 시대적 현상을 표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41
1. 교수-학습 프로그램 제안	41
2. 학습지도안	49
3. 수업지도 및 평가 시 유의할 점	64
VI. 결론	67

참 고 문 헌

참 고 그 림

ABSTRACT(영문초록)

그림 목 차

- (그림 1) <알타미라 동굴 벽화>, 스페인, 알타미라동굴
- (그림 2) <북새선은도권>, 한시각, 비단에 채색, 57.9 × 674.1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 3) <기사계첩>, 김진여 등, 비단에 채색, 76 × 59.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그림 4) <경직도>, 작자미상, 종이에 담채, 107.5 × 243cm, 건국대학교박물관
- (그림 5) <기도하는 손>, 뒤러, 유채, 비엔나 알베르티나 미술관
- (그림 6) <자화상>, 렘브란트, 유채
- (그림 7) <1808년 5월 3일>, 고야, 캔버스에 유채, 104 3/4 × 136 in
- (그림 8) <서당>,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 × 22.7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 9) <씨름>,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 × 22.7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0) <점심>,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 × 22.7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1) <길쌈>,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 × 22.7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2) <기와이기>,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 × 22.7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3) <빨래터>,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 × 22.7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4) <단오풍경>, 신윤복, 종이에 담채, 28.2 × 35cm, 간송미술관
- (그림15) <파적도>, 김득신, 종이에 담채, 22.5 × 27.2cm, 간송미술관
- (그림16) <대장간>, 김득신, 종이에 담채, 22.4 × 27cm, 간송미술관
- (그림17) <만남>, 쿠르베, 유채, 129 × 149cm, 파브르 미술관
- (그림18) <돌 깨는 사람들>, 쿠르베, 유채, 160 × 259cm, 드레스덴, 국립화랑
- (그림19) <오르낭의 매장>, 쿠르베, 유채, 315 × 668cm, 오르세 미술관
- (그림20) <화가의 아틀리에>, 쿠르베, 유채, 360.7 × 596.9cm, 오르세 박물관
- (그림21) <세탁하는 여인>, 도미에, 목판에 유채, 49 × 33cm, 루브르박물관
- (그림22) <삼등 열차>, 도미에, 목판에 유채, 65.4 × 90.2cm, 메트로 폴라탄미술관
- (그림23) <대화하는 세 변호사>, 도미에, 1843~46년, 캔버스에 유채
- (그림24) <씨 뿌리는 사람>, 밀레, 유채, 101 × 82.5cm, 보스턴 미술관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문화가 존재하고, 그 중 미술 문화는 한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족성 · 시대성 · 자연조건 · 관습 및 미의식 등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술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자신의 생각, 사상, 감정 등을 시각 표현을 통해 전달하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술을 예술품으로써 의미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사냥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동굴 벽에 들소를 그리고, 다산과 부를 상징하는 토기 등을 만들며 주술과 원시 신앙의 모습이 엿보이는 생활과 직접 관계된 미술이었다. 이후 미술은 종교, 정치, 사회 등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중세 교회의 제단 그림은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성서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종교적인 면이 있는 미술이었다.

오늘날 미술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소재와 주제가 과거보다 더 다양해졌다. 자유로움 속에 작가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스미디어, 정보통신 등 과학의 발달에 따른 매체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재료에 대한 조형 표현이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지고, 각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다른 영역과의 결합, 재창출 등 다양한 예술을 요구하면서 그림의 틀이 없어지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미술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 7차 교육과정¹⁾에서도 창조적인 표현 능력 및 비판적인 사고

1) 미술과 제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였다. 세분화 되어있던 활동들을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가지 큰 틀로 묶었으며, 우리나라 미술 문화

력을 기르고,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교육에서 창의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나, 주 5일제 수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수업시수 축소현상이 일어났고, 국어·영어·수학과 같은 주 지교과보다 미술·음악·체육과 같은 예능과목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부족한 수업시수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표현 활동이나 감상 활동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술이 대학진학에 필수 과목이 아닌 상황에서 학생들은 관심과 흥미마저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주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진학을 위해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러 노력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아름다운 자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등 현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학교와 집만을 오가며 개인주의라는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미술교육을 통하여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 경제적 풍요로움 속 삭막함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미술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와 시대적 양상을 배우고 현재 사회와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경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주위에는 다양한 변화가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교육되어야 한다.

주위 환경을 잘 관찰한 뒤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려보는 재현적 표현활동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주위 환경만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화제거리에도 관심을 두어 자신의 생각을 표

에 대한 주체성확립을 위해 전통미술을 강조하며, 감상교육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현해 보는 것도 좋은 표현활동이다. 이러한 표현활동을 할 때에는 조형요소나 조형원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보는 표현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술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경험과 생활상, 시대적 상황 등 내용과 주제에 비중을 두어 감상한다. 이에 제시작품을 응용하여 재해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고 구상한 것을 미술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방법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해 보고, 이를 종이에 그리는 표현방법을 벗어나 직접 몸으로 표현 해 보는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 재현적, 기록하는 기능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제시한다. 또한 미술과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술 수업 지도 시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의 의미 및 역할과 통합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문헌을 통하여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전반적인 이해로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의미를 알아보고, 조선시대 후기와 19세기의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두 사조의 발달과정 및 특징을 정리하고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대표작품에 대하여 고찰한다.

셋째,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동시대성과 해학성 등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연구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상황을 표현한 작품의 표현·감상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및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을 함께 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의 역할과 기능

미술은 인간의 내면을 심화하고 외적인 생활을 운택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 주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며,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순화시키는 표현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 미술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미술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미술품의 순수한 미적 체험을 통하여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고, 정신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인간의 정신에 기여하는 면과, 미술이 사회 각 부분의 요구에 호응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 속의 미술이 해당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이와 같이 미술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흔히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로 미적 만족의 기능이다. 미술품은 그 자체로 감각적이고 지적인 만족과 함께 미적 쾌감을 준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건축물이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우리의 석굴암 등은 현실적인 가치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적 쾌감이며,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 문화유산과 미술가들이 남긴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도 미적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정기 외 2인,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교학사, 2007, p.8.

두 번째로 교육적 기능이다. 미술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회의 감각적 기능을 해 왔는데, 이는 미술이 직관에 의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며 시각적 사고와 창의성이 필요한 문화시대이다. 삶의 질을 요구하는 문화시대에 미술교육은 생활 속에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창조적 표현과 함께 대중들이 쉽게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가 가진 교육적 역량을 모아서 미술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미술의 상업적 기능이다. 미술이 대중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자 시장을 형성하면서, 예술 분야를 넘어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작가, 화랑, 소장자가 있는데, 이를 시장경제에 비추어 본다면 공급자, 중계자, 수요자의 3요소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미술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미술품을 단순한 거래 대상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대상으로 여길 때, 미적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행위가 바람직하게 연결된다.

네 번째로 생활공간의 문화 창조기능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 있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미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 주거공간이나 주변 환경을 목적과 조형미를 살려 그림이나 조소작품으로 꾸미는 일도 미술의 큰 기능이다.³⁾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기능이다. 또한 미술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등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한다.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 벽화에 서부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조각, 시대의 영웅을 찬미하는 그림, 한 시대의 풍속이나 풍물을 그린 그림 등 오늘날까지 인간이 남겨 놓은 많은 조형물들을 살펴보면, 역사를 밝혀주는 기록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3) 김윤배 외 3인,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대한교과서, 2007, pp.8~9.

알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조형물을 보면 대상의 형과 색 등을 똑같이 표현하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같게 묘사하는 것이며, 대상의 형과 색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현적 표현이 주관성을 피하고 대상의 엄격한 객관화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작가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작품에는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현적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다.⁴⁾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그림1)의 박진감 넘치는 정교한 묘사는 결코 사실주의적이지 않다. 대상의 생명을 파악하는 것이 묘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간은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재현은 재현하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 행해지고, 그 행위 자체에 의해 욕구는 만족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작가의 의도가 베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현적 표현은 윤두서의 자화상이나 신윤복의 미인도 등에서 보이는 대상에 대한 재현과 그 시대의 풍속, 당대의 사회 현실 등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시각적 재현, 당시 서민들의 비참한 상태나 생활 모습, 노동을 하는 모습 등을 담은 상황적 재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재현적 표현도 보이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나 내면에는 의도하였든 아니든 간에 작가의 의식과 개성이 들어가 있다. 작가의 의식적인 면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만 넓은 시야로 본다면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나, 영웅화, 전쟁의 승리 조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품 역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미술은 가치를 일깨우며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윤리적 기능·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기능· 종교적 기능· 그림을 그리고 창작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치료적 기능도 지닌다.

4) 김윤배 외 3인,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대한교과서, 2007, p.14.

2. 미술과 시대 · 사회와의 관계

과거의 역사와 문화는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의 새 문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현재는 풍요롭고 미래의 새 문화 발달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와 민족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⁵⁾

예술문화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역사를 이루며 변천해왔다. 또한 회화, 세예, 조각, 각종 공예, 건축 등 미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양상을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국가나 민족들과도 빈번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기도 한다.

역사나 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예술 중 미술을 각별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선사시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많은 적든 수준이 높은 낮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어서 각 시대별 제반 양상과 역사적 변천 상황을 밝히고 통사를 엮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는 사실 때문이다. 다른 대부분의 예술 분야들은 그 시대의 두드러진 특성과 빛나는 업적,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문화사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복원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흔히 문화재라고 일컬어지는 미술자료에 먼저 주목한다.

유럽 3대 미술관의 하나인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은 1992년 1만9천56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해에 전시된 작품은 1천781점에 불과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으로, 공공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수장고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느니 차라리 작품을 팔아버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미술관에 있는 예술작품은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혹,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미

5) 안휘준, 『한국의 미술과 문화』, 시공사, 2002, p.196.

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공공기금에 귀속되어 버린다. 공공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은 현실적인 가치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모은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소장품들을 국가에서 잘 보존해주지 않는다면 후세에 문화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잠언을 보면, 시대는 흘러가도 예술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사상과 그 곳의 정서 및 가치의 방식, 상징적·양식적·생산적 전통의 유형과 질서 체계를 따르거나 탈피하려는 미술가들의 과정이자 제작품이므로, 그 시대 문화의 지식과 전달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미술품을 단순히 조형요소와 원리로만 분석하게 되면 미술품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시대적 맥락 속에서 시대적 상황과 정신의 반영 및 각 시대별 미술의 역할과 미술의 표현 특성을 간과하게 된다. 미술품이 배출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그 시대가 지닌 정치·종교·역사·미적 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고 추정하며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형적 분석도 시대적 상황,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⁶⁾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 그 시대가 지니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미술의 재현적인 면에 집착하게 되고, 재현된 회화를 통해 그 시대와 의사소통을 하고 간접적 문화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미술 및 미술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현 및 감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사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6) 교육부,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1997, p.70.

3. 표현활동과 미술 감상교육

미술교육은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형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미술작품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총체적·조화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⁷⁾

미술교과에서 표현활동은 작가가 생활을 인식한 기초 위에서 조형적 수단을 운용하여 창조를 진행한 시각적인 성과이다. 미술 표현과정은 예술적으로 생활을 인식하고 생활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즉 미술표현은 미술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이 생활을 인식하고 생활을 표현하는 미술 표현활동은 진행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거기에는 생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이런 문제는 창작방법의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창작방법이란 미술 표현활동에서 생활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의거해야 할 기본원칙과 방법을 말한다. 개개인의 생활 의식을 보다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창작 방법의 이해는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직접 표현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표현능력이 신장되고 미술 이해력 및 감상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조형요소와 원리, 시각적인 재료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를 순화하고 심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⁸⁾

감상활동은 미술작품이나 조형품 등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를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하고 미술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화함

7)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p.18.

8) 손영주,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수업을 통한 표현활동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5, pp.10~11.

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

감상활동은 표현활동의 동기유발이며, 작품이나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을 높임으로써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술이 각 시대나 민족, 지역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작품을 통하여 당시의 사상, 종교, 문화와 미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며, 양식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것은 감상에 있어서 필요하다. 단순히 작품의 연대나 작가명, 작품명 등을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감상법이라 할 수 없다.⁹⁾

작품의 감상은 감상자의 개성과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품을 통하여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작가의 인생관·세계관, 그리고 미적 감성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 방법은 작품을 직접 보고 느끼는 향수적 감성과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작품을 서로 비교·분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미술 감상의 목적은 작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작품 속에 깃들인 미적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은 감동에서 출발하여 지적 정리를 거쳐 또다시 새로운 감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감상을 통하여 작품에 대해 감동하는 풍부한 감수성과 밝고 예리한 감각을 길러야 하며, 조형작품의 선택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특히, 현대 미술은 감성과 지성을 합리화 시키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감상자의 지성과 정서가 동원되기 때문에 각자의 기질이나 취미, 교양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¹⁰⁾

제 7차 미술교육과정에서는 그 전까지 가장 소홀히 취급되었던 감상영역에 비중을 두어 미술사만이 아니라 통찰력,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비판능력 등

9) 교육부,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1997, p.29.

10) 김윤배 외 3인,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대한교과서, 2007, p.36.

미술 비평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표현활동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감상활동을 통해 미적 안목을 기르고 가치판단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해야 하며, 이는 경쟁력 있는 문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국민 공통교육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감상활동은 표현활동, 미술이론, 미술사, 비평활동 등이 활동들이 병행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을 할 때에는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이 동시에 통합 지도되어야 한다. 감상활동을 통하여 길러진 안목을 표현활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의 단점을 고쳐갈 때, 더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이해

본 연구자는 II장에서 미술의 역할과 기능 중 역사적 사실의 기록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사실적 표현을 한 작품을 통해 당시의 생활모습과 문화, 시대적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사실적 표현을 한 대표적인 두 사조(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시대적 배경과 발달과정 및 특징을 알아보고 대표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1. 조선후기 풍속화

1) 풍속화의 의미

풍속화(風俗畵)란 인간의 생활상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그림을 말한다. 사회 각층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례·신앙·놀이·잔치·생업장면 등이 모두 포함된다.¹¹⁾ 또 그 의미에는 민중의 생산 활동과 생활 주변의 평범한 일상사를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한 중세 지식층의 사상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당대 사대부들이 속된 그림이라는 의미로 ‘속화(俗畵)’라 부른 것은 그 때문이다. 한편 풍속화의 발전이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현상은 풍속화가 단순히 중세적 회화사조에 머물지 않음을 함께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18~19세기가 근대를 향해 봉건사회의 틀을 벗어나려는 변동기이면서 동시에 창조적 문예 역량을 높였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풍속화의 유행을 주도했던 시기는 조선후기이지만, 삶의 풍습을 담은 그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예술은 인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11) 이원복,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광주박물관, 2002, p.6.

인간 삶이 그 모태이기 때문에, 구석기시대 동굴벽화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상이 등장하고 그 생활정서가 표출되는 영역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인간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은 조선후기의 풍속화는 이념과 형식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이전과 뚜렷이 구분된다. 우리 미술사에서 선사시대의 생활상 표현은 암각화나 청동기의 농경 문양처럼 도식화된 것이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민중생활이나 고려나 조선 불화에 삽입된 농경도와 생활도는 지배층이 민중노동을 소유한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 고구려 벽화의 행사도나 조선시대의 궁중의궤도(宮中儀軌圖)와 양반 관료층의 계회도(契會圖) 역시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과시적 의도 아래 제작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조선후기 풍속화의 발전은 사회변동 속에서 민중의 삶을 객관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보다 나은 인간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¹²⁾ 따라서 풍속화는 당대의 생활풍습의 변화 등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수준 높은 사실풍의 회화라고 할 수 있다.

2)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

16세기 말의 임진왜란과 17세기 전반 병자호란으로 인해 전국이 초토화되는 등 큰 변화를 겪은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고, 18세기의 영·정조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민족문화가 크게 꽃피게 된다. 조선 후기의 문화는 조선 초 세종대의 문화 발전에 비교될 만한 것으로서, 훌륭한 민족문화를 이룬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였다.¹³⁾

정치적으로 종래의 부당한 여건이나 제도의 개혁을 꾀하고 신분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며 제반의 학문적 연구에 실증적 태도를 취했던 실학이 성행하고, 이는 비단 정치나 사회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12)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2002, pp.136~141.

13)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p.299.

의의를 지닌다. 실학은 조선 전기 성리학에 비하여 근대 지향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개신 유학(儒學)이라 해명되었다. 즉, 성리학이 조선 왕조 지배 계층의 지도 원리였다면 실학사상은 민중의 편에 선 지식인들의 개혁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학으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 회화의 수요가 증대했으며, 아울러 서민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꾸밈없는 감정과 애정의 표현이 미술에서도 가능해졌던 것은 예전에 없던 일로 괄목할 만하다. 또한 이 시대의 회화는 대체적으로 일반과 보다 가까워지고, 또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적 회화를 형성하였다.¹⁴⁾

조선 후기 풍속화의 태동을 예고하는 실제 작품으로는 17~18세기 기록화와 경직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의궤(儀軌)와 양반 관료층의 계획나 향연을 담은 기록화(記錄畵)가 성행하였다. 이 그림들은 현장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풍속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지배층의 권위를 표현하는 독특한 서술형식에 의해 그려졌다. 궁중의 행사기록화가 옆으로 긴 두루마리나 화첩에 행상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구성한 점이나 양반층의 계획도에서 위아래로 긴 화폭에 그들의 이념에 어울리는 산수풍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풍경과 풍물의 등장은 바로 조선 후기 실경산수와 풍속화 발전의 회화적 모태를 찾아볼 수 있는 전거이다.

기록화로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새선은도권>(그림2)과 <기사계첩>(그림3)에 나타난다. 한시각의 <북새선은도권>은 옆으로 긴 두루마리로 함경도에서 시행한 별시과정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길주 관아에서 문무과 과거시험 장면을 담은 <길주과시도>와 함흥 관아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함흥방방도> 두 폭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계첩>은 궁중의 권위적인 행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민이 등장하는 기록화로 숙종46(1720)년

14) 안휘준, 『한국의 미술과 문화』, 시공사, 2002, pp.134~135 참조.

에 제작되었다. 엄격했던 궁중이나 사대부 행사의 기록화에 행사와 무관한 구경꾼이나 민중의 생활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인 구경꾼이나 민중 생활상의 등장은 흥미꺼리를 제공해주고, 화면 운영의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즉 임진·병자 양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봉건사회 내부에서 민중의 지위와 역할이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농사짓는 일과 누에치고 비단 짜는 일을 그린 경직도(耕織圖)도 성행하였다. 안락한 궁궐 생활에 젖어 있는 통치자로 하여금 농부와 누에치는 여인들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스스로 근검절약하게 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힘쓰게 하기 위한 계몽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경직도>(그림4)는 연산군 4년인 1498년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으며 19세기는 서민에까지 확산되었다. 이렇게 서민까지 유행한 경직도는 병풍그림이 많으며 대부분 화가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그림에는 섬세한 채색화에서부터 조악한 필치의 그림까지 차이가 났으며, 내용은 대체로 농가의 세시풍속을 함께 그렸다. 정월부터 동지 선달까지 계절 풍경과 함께 한 화면에 두세 가지 농사일이나 생활상, 놀이문화를 배치한 산수풍속도가 많다.

17세기 말, 18세기 전반에는 윤두서와 조영석의 ‘속화’에서는 그들은 양반 사대부이면서도 민중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전에 나온 기록화에는 민중의 삶이 보이기에는 했지만 사대부의 기록화 배경으로만 채워져 있던 것이 인간사(人間事)로서 민중의 노동생활을 직접 회화적 대상으로 포착한 것이다. 이들 민중의 생활현실을 담은 그림은 민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근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나타난 진보적 사회의식의 한 표명으로 다가온다. 또 이들의 회화가 사회의식과 현실 감정을 담는 데까지 나아간 성과는 관념적 표현을 탈피하려는 사실주의적 창작태도에 있다. 사생을 통한 창작태도는 생활체험 속 다양한 소재의 확산을 가져왔고, 또 직접 현장소묘를 통하여 대상을 해석하는 화가들의 개성미가 자연스레 도출되었다. 묘사기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동일 작가의 산수인물이나 다른 주제에 비하여 회화적

형식미의 손실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이들은 민중의 삶과 자기 주변에서의 일상 체험을 형상화함으로써 당시에는 ‘속된 그림’으로 치부당하면서도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당당한 회화영역으로 이끌어 올렸다.

윤두서와 조영석이 본격적으로 민중의 삶을 그렸으면서도 남에게 보이기 꺼려했던 풍속화는, 이후 여러 화가들이 일상의 사회생활상을 포용하면서 18세기 후반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 김홍도로부터 김득신, 신윤복의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민중의 생산 활동과 그 과정 속의 생활습속에서 양반이나 부민층의 유희, 사대부의 풍류적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내면서 시대감정과 사실정신에 기초한 회화성을 탄탄하게 다져놓았다.¹⁵⁾

3) 풍속화의 특징

조선시대 후기의 풍속화는 동시대에 유행한 실경산수와 함께 이 땅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여러 생활상을 직접 회화의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동향이다.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풍속화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시대적 증거로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읽게 해주는 기록이라는 점이다. 당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풍습을 복원 가능케 하고 그림의 내용과 표현형식을 통하여 사회변동의 폭이 커진 조선 후기의 시대정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사회는 지배층인 양반들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그 힘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고, 기존의 가치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치권력층이 여전히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양반층 내에서도 당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상체계를 세우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이 대두되었다. 이런 가운데 17~18세기 선비화가들이 선진적 의식으로 사회변화 속에서 직접 생산을 담

15)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2002, pp.144~286 참조.

당한 민중들의 일과 놀이, 그리고 삶의 일상들을 주된 표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풍속화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풍속화에 등장한 현실세대와 민중 삶의 다양한 모습은 변혁기의 사회상을 그 어느 문헌보다도 생생하게 검증해낼 귀중한 문화자료인 것이다.

둘째, 사회 변동 속에서 민중의 삶을 객관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보다 나은 인간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주의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풍속화의 새로운 예술의지는 인간에 대한 폭 넓은 인식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즉 기존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과정 속에서 민중과 양반층의 일상생활이 동일선상으로 소재가 된 사실은 인간 삶의 가치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민중의 삶을 비롯하여 인간의 일상을 특유의 여유와 익살스러운 회화성으로 탁월한 예술성을 구현해 내었다는 점이다. 윤두서나 조영석이 민중생활도에 눈을 돌리고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이 이룩한 풍속화의 회화적 성과는 단순히 사람들의 풍속을 담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긴장미 넘치는 화면의 짜임새에 등장인물의 성별·나이·신분에 걸맞은 자세나 표정을 정확히 잡아내어 조선 특유의 삶과 멋이 스며있는 ‘인간’을 형상화하는 표현형식을 완성해 내었다. 인간의 삶에 애정을 쏟고 아름답게 느낄 수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러하였기에 개성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사실주의적 회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예술적 발전은 당시 실경산수나 동물화, 초상화 등과 함께 조선후기 회화가 이룩한 찬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¹⁶⁾

조선 후기 풍속화는 위의 미술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내에서 꽃피우고 주저앉았다는 시대적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19세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시련과 혼란이 우리나라에 엄습했던 때로서, 회화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중국문화에 심취하고 중국을 흠모했던 김정희의 영향력

16)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2002, pp.139~143.

으로 인해 남종화가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¹⁷⁾ 가장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삶과 사실정신이 깃든 진경산수나 풍속화가 쇠퇴하게 되었다.

2. 19세기 사실주의 회화

1) 사실주의의 의미

사실주의는 처음 철학에서 쓰였고 철학에서 문학으로, 문학에서 미술로 건너오면서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 의미로서 ‘예술 제작상의 이상주의적 여러 경향, 즉 낭만주의 · 고전주의 · 예술지상주의 · 형식주의에 대립하여 현실의 재현 묘사에 중심을 두는 경향을 총칭한다.’¹⁸⁾ 또는 ‘합리적 질서 위에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형식화나 데포르마송을 행하지 않는 예술사조. 대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¹⁹⁾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충실히 묘사하려는 노력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이때의 회화는 자연을 충실히 재현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점차 이상화되어 자연 그대로가 아닌 자연의 보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중세의 회화는 자연의 묘사를 통해 신의 창조를 찬양하는 목적을 갖고 기독교의 상징주의적 경향으로 대체되었다가 고딕 말기와 르네상스에 와서 다시 나타난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고대 그리스의 미술 이념을 받아들인 이상미를 추구한 사실주의 회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9세기에 나타난 사실주의는 대상에의 철저한 객관화를 요구하고 귀족이나, 신을 대상으로 하여 미화시켰던 종래의 회화 개념에서 시각을 돌려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인식한 체험적인 사

17) 임두빈, 『한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2001, p.283.

18) 학원사편집국편, 『철학대사전』, 학원사, 1963, p.481.

19)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p.193.

실만을 객관적인 서술법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으로서의 시각을 뛰어넘어 인식과정을 거친 ‘실재’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단순한 의견·착각·허구와 구별 되는 것이며 사물의 참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된다. 사실주의 회화는 다름 아닌 이 같은 실재를 형상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으로 화가 스스로가 진실을 지각할 수 있어야만 표현으로 옮길 수 있다. 즉 인간의 인식체험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이 실재가 되며 이는 사실주의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규범이다. 사실주의는 실재, 또는 진실이란 객관화된 것으로 모두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실주의는 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 실재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비로소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²⁰⁾ 우리의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우리의 눈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사물을 아무런 선입관 내지 상상력으로 변질 또는 왜곡됨이 없이 충실히 묘사하려 노력하였다. 즉, 19세기 사실주의는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인 대상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고자 한 회화이다.

2)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

사실주의는 수세기에 걸쳐 발생하고 전개되었지만, 19세기에 이르러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양식이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사실주의 회화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 사실주의 회화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근대 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1794년 이후 전체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민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특

20) 한명순, 「리얼리즘 회화의 사회 비판적 특성을 활용한 미술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14~15.

권계급을 폐기하고 예술 및 문화전반에 걸쳐 그 주도권을 시민계급으로 이행시켰으며,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발전되어 구제도의 특권 사회가 가진 모순을 무너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의 입헌군주제로부터 1792년의 공화정, 나폴레옹의 제정, 왕정복고와 7월 왕정, 제2공화정, 제2제정, 제3공화정으로 바뀌는 등 1세기 동안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²¹⁾ 정치 변화가 말해주듯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확대되었는데 경제권을 장악한 산업자본가는 생산수단과 이윤을 독점하여 사회적 실력자가 되었다. 산업의 발달은 인구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실업과 노동문제 등이 야기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은 위대한 부를 낳으면서 또 한편으로 비참한 빈곤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중산계급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자유주의·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현실주의, 물질주의,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됨으로써 시민계급의 성장과 시민의식이 성장하였다.²²⁾ 이로 인해 불합당한 대우를 받던 노동자들은 1848년 조직적인 운동을 일으켜 지위 상승을 획득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요소를 바꾸려 하였으며, 예술에서도 현실생활을 회화에 반영하는 새로운 미술이 대두 되었다.

이처럼 19세기는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확립되어 이제까지 특권세력이 중심이었던 문화도 시민이 주인이 되었고, 그 문화의 특징도 현실적·실증적인 시민계급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회화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21) 박은영, 『19세기의 서양미술』, 조형교육, 2001, p.90.

22) 정진연, 「쿠르베의 리얼리즘 회화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p.16.

르네상스 이후 이성을 중시했던 신고전주의에 반발하고 일어난 낭만주의는 감수성을 특히 중요시했고, 작가와 화가 모두 이성적인 객관주의보다 감성과 직관에 의존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숭배로 인간과 자연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서로 감응할 수 있으며 인간 내부에 숨겨진 신성함을 끌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²³⁾

과학의 발전으로 기계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때에 신고전주의의 시대착오와 낭만주의의 도피주의는 현실적인 면과 멀어지면서 점차 사라져 갔고, 실증주의적 회화인 사실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

사실주의 이전의 19세기 화가들은 그들의 주제를 이상화하거나 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어느 정도 수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주의 화가들은 시각적으로 인지된 것들만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모방하기를 고집했다. 사실주의의 주제 역시 종래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화가들은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만 그리는 것으로 주제를 국한시켰다. 따라서 사실주의의 화가들은 그 시대의 화가들에게 적합한 주제는 그 시대의 모습일 뿐이라고 고집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존재해야 한다.’가 그들의 구호였다. 쿠르베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 화가는 근본적으로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 점에서 나는 과거를 주제로 한 역사화의 존재를 부정한다. 역사적 예술이란 그 시대의 본질에 의한 것이다. 한 시대는 그 시대를 표현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는 그 시대의 예술가를 가져야 한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로 끝나며, 그 시대를 표현하는 그 시대의 대표자들도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진다.”라고 말했다.²⁴⁾ 즉, 자신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19세기 이전에 사실주의적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 사례는 구석기시대 원시 동굴벽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반 아

23)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 역, 예경, 2004, p.164.

24) 린다 노클린, 『리얼리즘』, 권원순 역, 미진사, 1992, p.29.

이크²⁵⁾와 뒤러의 <기도하는 손>(그림5)은 원래 프랑크푸르트의 상인의 장식을 위해 그린 여러 그림중 하나로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17세기의 카라바조, 베르메르 외에 렘브란트는 <자화상>(그림6)을 자신과 일치하게 그리려 붓과 팔레트를 손에 든 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렸고, 자신의 내면까지 묘사하려 노력하였다. 고야의 <1808년 5월 3일>(그림7)에서도 사실적 표현이 보인다. 스페인에 발란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군대가 그것을 진압하는 일이 벌어졌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민을 학살시킨 비극적인 사건에서 고야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현실을 비판했다. 이같이 사실적 그림을 19세기 이전에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사적 맥락에서 사실주의는 19세기 예술운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현실적이고 감정적 차원에만 국한시키고 있었던 그들의 시야를 보다 광범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영역을 확대시켰다.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나타난 예술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지금까지 문학으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왔던 모든 주제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하였다. 그 시대의 번창한 모습들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변두리로 밀려난 거칠고 저속하며 평범한 것들을 묘사하는데 긍정적인 가치를 두었다. 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 세탁부, 매춘부, 중산계층이나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 카페나 무도장, 목화 증개상이나 여성복 상인들이 모이는 재미없는 곳, 자신과 친구들 및 난로가나 정원 등에 눈길을 돌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모든 불행과 권태 및 애정으로 가식 없이 바라보았다.²⁶⁾ 또한 그들은 새로운 주제를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통해 그 시대의 진실과 정직, 그리고 성실의 가치에 대해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25) 네덜란드의 화가. 플랑드르 화파의 기초를 닦고, 유화의 기법을 개량한 '에이크 형제' 중의 형으로 강(Gent)의 성요한성당의 제단화(祭壇畫)를 그렸다. 이는 사실적 회화의 초기 단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6) 린다 노클린, 『리얼리즘』, 권원순 역, 미진사, 1992, pp.38~39.

3) 사실주의 회화의 특징

앞에서 조선 시대 풍속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실주의 역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서민을 주제로 나타냈기 때문에 풍속화의 특징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첫째,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에는 동시대성의 개념이 드러난다. ‘예술가는 그 시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 제안은 비록 사실주의 화가들이 먼저 만들어 낸 말이 아니지만,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동시대성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19세기 사실주의는 역사적으로는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발달을 반영하여 동시대성을 가장 중시하며, 자본가의 세계관과 그 사회적 모순에 반항하며 과학적으로는 현실을 아무런 이상화나 미화 없이 정확하고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9세기 사실주의 화가들은 동시대의 일상생활의 평범한 측면, 즉 자본가계층의 예술가들이 무시해 온 노동이나 비천한 하층계급들의 생활상, 도시의 병폐, 지저분하고 폭로적인 것들이 소재나 주제로 선택하여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사회모순에 대한 극복의지를 드러냈다.²⁷⁾

둘째, 사실주의는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당시 사회는 1848년 정치적 상황을 경험한 세대로 프랑스 대혁명 실패, 6월 봉기의 진압, 나폴레옹 3세의 집권 등의 사건들로 지위 상승과 사회의 부조리한 요소를 바꾸려 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예술은 이상이나 상징보다는 그 시대의 모습을 분석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셋째, 사실주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였다. 방법에서는 엄밀하게 과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사실성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과학적이었다. 미술의 목적인 진실(사실에 대한 진실, 인지되고 경험에

27) 김을태, 「20세기 미술에 나타난 리얼리즘 회화의 계승·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44.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과학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똑같은 힘을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과학자들처럼 진실의 기초로서 사실을 중시했다. 졸라²⁸⁾는 1866년의 살롱에서 “바람이 과학 쪽으로 불어간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사물과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록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다음 해에 그는 “과학은 결실한 기초와 사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요구하므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과학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식의 영역에서 인간의 행위는 뚜렷하고 확고한 사실주의의 원리를 추구한다.”²⁹⁾며 그 시대의 과학혁명의 보편성을 말하였다.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는 천사를 그려보라는 주문을 받자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나에게 천사를 보여준다면 그려 보겠다.”고 대답했다. “망막에 비치지 않는 것은 그리지 말라.”³⁰⁾라는 그의 신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에 있어서도 관찰과 분석, 객관적인 주제를 다루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보다는 사실성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받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실주의는 인간적인 상황을 하찮은 실험실로 전락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다. 가장 물질적인 특징만을 부각시켜 물질의 세계를 재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전반적인 물질주의에 대하여 비난했다. 즉 ‘무엇을 그릴 것인가’라는 소재와 주제만을 고민하고 그 상황의 묘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이나 양식적 특성, 물감을 다루는 방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³¹⁾

과학으로 인하여 사진이 출현하자마자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는 더 이상 매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사실주의의 뒤를 이은 인상주의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 보다는 그리는 방법에 몰두하여 새로운 시각의 회화를 맞

28) 에밀 졸라(1840~1902)는 실험 과학, 특히 생물학의 방법을 소설에 적용하려 한, 자연주의 작가로 P.세잔과 사귀게 되어 시와 예술을 논하기도 함. 1862년 아셰트서점에 취직하여 당시의 과학적, 실증주의적 사상과 결부된 사실주의적인 문학 조류에 눈을 뜨고 시를 버리고 콩트나 평론을 쓰기도 함.

29) 린다 노클린, 『리얼리즘』, 권원순 역, 미진사, 1992, p.48.

30)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 역, 예경, 2004, p.175.

31) 제임스 벨페스, 『리얼리즘』, 정현이 역, 열화당, 2003, p.8.

이한다. 이러한 발전은 사실주의 회화의 여러 특성 중 과학적 특성이 계승·진보된 것이라 하겠다.

3. 대표작가 및 작품 고찰

(1) 김홍도[金弘道, 1745~?]

단원 김홍도는 산수화, 인물화·영모화·화조화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지녔으며, 특히 풍속화에서는 당대 최고의 실력을 지닌 화가였다.³²⁾ 그의 풍속화는 과장이 없는 동양 특유의 해학성을 가지며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정서가 있는 그림이다. 그의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 등 생활상을 관찰하여 풍속화가 지녀야 할 시대성, 기록성, 사실성을 모두 살리고 있다. 이러한 작품 속에는 원형구도나 사선구도 등으로 화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과 인물의 표정이나 의습처리, 동물의 묘사력도 뛰어났으며, 이에 걸 맞는 활달한 필선을 구사하였다. 그의 탁월한 표현능력으로 새로운 회화의 정형을 제시하였다.

그의 작품 중 <서당>(그림8)은 그 당시 교육기관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기록화라 할 수 있다. 등장인물 간의 감정표현을 적절하게 구성한 작품이다. 방금 훈장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학동은 한 손으로 대님을 매고 다른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훈장의 얼굴에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고, 학동들은 까르르 웃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맨 아래 등을 보이는 학동의 표현이 흥미로운데,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구불구불한 옷 선에서 쿡쿡 웃는 모습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 웃음과 울음의 표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청각적인 효과마저 살아나고 있다. 여학생의

32) 임두빈, 『한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2001, p.227.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학생만 서당에 다녔던 것을 알 수 있다.

<씨름>(그림9)은 당시의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원형구도를 사용하고 있다. 가운데의 씨름꾼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옷을 잔뜩 움켜쥐고 있고 얼굴표정엔 낭패의 빛이 뚜렷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표정과 자세는 구경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구경꾼들은 상체를 앞으로 굽히면서 승리의 막바지를 독려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의 두 사람은 넘어가는 자신의 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입을 벌리고 놀라는 표정으로 몸을 뒤로 젖히고 있다. 화가마저 어찌나 다급했던지 땅을 짚은 손가락의 모습을 바꾸어 그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화면 맨 아래에 등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는 이러한 열띤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엽을 팔고 있는 엽장수만 쳐다보고 있다.

조선후기 서민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표현한<점심>(그림10)은 앞의 아낙이 일꾼들을 등지고 가슴을 풀어헤친 채 젓을 먹이고, 옷통을 벗은 채 식사하는 일꾼의 모습들이 대담하고 개방적으로 표현되었다.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모습 등에서 웅성거림을 느낄 수 있으며, 생동감 있는 묘사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느껴지는 듯하다. 또한 젓먹이는 모습에 개까지 동원하여 화면에는 더욱 정감이 넘친다.

옛날의 의생활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김홍도의 작품 <길쌈>(그림11)은 며느리가 길쌈을 하고 있는 장면을 손주를 업고, 데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뒤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옛날의 의생활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다. 한 여인이 베틀에 앉아 오른손에는 북을 들고, 왼손에는 바디를 잡고 열심히 길쌈을 하고 있다.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인은 베틀질을 하기 전에 풀을 먹여 실을 뽀뽀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지금처럼 공장에서 옷감을 공정하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기와이기>(그림12)는 옛날 집 짓는 모양을 담고 있다. 먼저 기둥을 세워

보를 엮고 서까래를 걸어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얻는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기왓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 조각을 깎아 붙이고 나뭇개비와 수수깡을 촘촘히 엮어서 깐다. 여기에 다시 흙 반죽을 깔고서 기와를 얹는다. 가운데 옷통을 벗은 사람이 흙덩이를 달아 올리고 있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서 던진 기와를 맨손으로 받고 있다. 지붕아래 먹줄을 늘어트리고 기둥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알아보는 목수, 대패질을 하는 사람 등이 등장한다.

<빨래터>(그림13)는 대각선 구도로, 화면을 나누어 왼쪽 아래에는 빨래하는 장면, 오른쪽 위에는 그 장면을 훑쳐보는 인물을 배치하였다. 가운데 두 아낙은 이야기를 나누며 방망이질을 하고 있고, 개울물에 들어간 아낙은 빨래를 비틀어 물기를 짜고 있으며, 다른 아낙은 편편한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손질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아기가 젖을 만지고 있다. 장면 장면이 정겹게 느껴진다. 빨래하는 아낙네만 보면 여인의 풍속으로 그냥 넘겨 버리기 쉬운데, 훑쳐보는 양반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보다 짜릿하게 고조시킨다.

(2) 신윤복[申潤福, 1758~?]

혜원 신윤복은 김홍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창안하였다. 신윤복은 김홍도가 서민의 풍속을 주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양반계층의 풍속을 주제로 했는데, 주로 남녀 간의 연애를 하는 모습이나 양반들이 기녀들과 즐기는 모습을 그림에 담아³³⁾ 사대부의 방탕한 생활을 고발하였다. 또한 신윤복은 가늘고 유연하며 섬세한 선과 부드러운 면서 산뜻하고 또렷한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풍속을 세련되고 깔끔한 화풍으로 형상화하여 조선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보다 다채롭게 넓혀준 화가이다.

신윤복의 <단오풍정>(그림14)은 조선후기 풍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음력

33) 임두빈, 『한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2001, p.231.

5월 5일 단오날의 풍경을 담고 있다. 단오날에는 맑은 시냇물에서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 동네 여인네들은 그네를 뛰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곤 했다. 머리를 매만지는 여인들의 머리채가 소담스러운데 ‘다리’라는 가채를 넣어 함께 땀은 것이다.

(3) 김득신[金得臣, 1604~1684]

금재 김득신은 일찍부터 김홍도를 충실히 공부하여 풍속화와 인물화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김홍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후에 김득신은 나름대로 새로운 소재를 찾으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필선은 김홍도의 것보다 대체로 좀 더 가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³⁴⁾ 또한 김홍도와는 달리 풍속도에 배경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의 재치 있는 구성력과 회화성을 높이려 한 화가이다.

그의 작품 <과적도>(그림 15)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양반을 주제로 하였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잘 포착하여 그린 그림으로, 꽃망울이 맺힌 봄날 한낮의 조용한 시골 농가에 갑작스런 소란이 벌어졌다. 고양이가 병아리를 채가자 다른 병아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그래도 어미 닭은 부리를 세워 고양이에게 대들고 있다. 주인은 어찌나 급했던지 자리를 찌던 기구가 마루 밖으로 나동그라지고, 탕건이 벗겨지고, 몸도 가눌 새 없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음만은 급해 담뱃대를 길게 뽑아 고양이를 쫓고 있다. 붉은 꽃이 핀 나무조차 고양이를 향하고 있다. 부인은 소리를 지르고 황급히 주인을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이미 늦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붉은 꽃이 핀 나무는 수직, 수평방향의 정적이고 무심한 모습이다. 돌발적인 사건으로 벌어지는 소란스런 상황을 박진감 넘치게 표현하였다.

<대장간>(그림 16)에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인물을 설정하여 화면에 변화

34) 김원용·안희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4, p.514.

를 주면서 상황적 재현을 하고 있다. 그는 불에 빨갱게 달군 쇠덩이를 붙잡고 있으면서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혀바닥을 빼죽 내밀고 있다. 아마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 또는 그림을 보는 감상자까지 쳐다보면서 ‘뭐 이런 것까지 그럴게 있느냐?’는 투인데 이 모습이 오히려 실재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더욱이 이작품의 인물묘법에서는 미묘한 울동감이 느껴지고, 갈필 위주로 묘사된 배경 속에 꿈틀거리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4)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1819~1877]

쿠르베는 시대적 요구와 당대 사상을 누구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과장이나 이상화 없이 현실을 묘사한 작가이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을 계기로, 단순 노동자라든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들을 조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은 실증주의와 마르크스 유물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여 기계화가 점차 빨라지고 사회는 객관적인 사실성의 등장으로 사실주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였다. 쿠르베는 대상을 사실처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충실하여, 상상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등지는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노동자의 일하는 모습이나 중산층을 비웃는 모습을 주로 그렸는데, 당시 비평가들은 쿠르베의 이러한 모습을 추하고 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³⁵⁾ 그는 아름다움이나 가식보다는 진실을 원했고 이러한 사실주의 회화는 다른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만남>(그림17)은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그림은 몽펠리에 외곽의 세뜨로 가는 길에서 화가와 그의 후원자인 알프레드 브뤼야, 그리고 하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³⁶⁾ 셔츠 차림에 배낭을 등에

35) 장준석,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서양미술사』, 학연문화사, 2004, p.319.

36) 린다 노클린, 『리얼리즘』, 권원순 역, 미진사, 1992, p.21.

진 채 한 손에는 모자를 벗어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든 수염 난 모습에서 품위 있는 포즈나 화려한 색채는 없으나 사물을 객관적·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를 후원해준 부유한 은행가 출신의 브뤼야는 고개를 약간 숙여 쿠르베에게 존경을 표하는 자세이고, 쿠르베 자신은 고개를 바짝 치켜들어 자존심을 세운 듯 보인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작가의 자존심과 작가의 세계가 보이는 듯하다.

서민들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보여준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그림18)에는 모자를 쓴 한 늙은 노인이 한나절 피약벌 밑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도끼로 열심히 돌을 깨고 있다. 그는 찢어진 조끼에 무릎을 기운 남루한 바지를 입고, 구멍 난 양말 뒤꿈치를 드러낸 채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를 거두고 있는 소년은 윗도리가 여기저기 찢어지고 양복바지 멜빵 띠도 하나만 걸친 채 무거운 짐을 무릎으로 받치고 있다. 이 무명의 노동자들은 힘에 부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노인은 일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것을 그의 거칠고 뼈만 남은 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은 학교에 갈 어린 나이에 힘들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³⁷⁾ 그는 가난한 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해 상류사회를 비난하고 정치적·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었다.

쿠르베의 <오르낭의 매장>(그림19)은 그 시대 사회현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돌 깨는 사람들>로 살롱전에 첫 선을 보이면서 동시에 격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이다. 그의 고향인 프랑스의 작은 마을 오르낭을 무대로 시골 들판에서 거행되는 소박한 촌사람들의 장례식 풍경이다. 여자들은 검정 옷에 모두들 일에 시달리는 모습이고, 무덤 주위에 서 있는 남자들도 일하다 그냥 온 옷차림이다. 장례식을 집행하는 신부와 그의 추종자들도 과장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렸다. 그들은 장엄하거나 비통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죽음과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사실적인 작품이다. 그의 작품 중 규모와 기법, 주제, 의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것일 뿐 아니라 19세기 사실주의

37) 최승규, 『서양미술사 100장면』, 가람기획, 2001, p.272.

의 대표작으로 간주되어 미술사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화가의 아틀리에>(그림20)는 ‘화가의 아틀리에, 7년간의 예술적 생애를 규정하는 현실적 우의화’라는 부제를 달아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였지만 심사위원들에 의해 전시를 거부당하자 개인 전람회장을 만들고 ‘사실주의 전시관’이라 이름을 붙이고 작품44점을 전시하는 사상 유례없는 단독 전시를 하였다. 쿠르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작품에서 자신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표현하였는데, 왼쪽은 그의 작품의 주제가 되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은 파리 예술계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작품의 가운데 자신과 그 주변 세계와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 중심부의 인물은 밝고, 선명한 햇빛의 조명을 받고 배경과 측면은 어둡게 표현하였다.

(5) 오노레 도미에 [Honoré Victorin Daumier, 1808~1879]

도미에는 그 시대 사회현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사회의 인습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풍자’를 과감히 시도한 작가이다. 귀족과 정치가들의 으스스대는 모습을 괴기하게 풍자한 캐리커처를 주로 그렸다. 황제 루이 필립은 “민중에게서 쥐어뜯은 보따리를 집어 삼키는 왕”을 묘사한 만화를 보고 도미에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도미에는 석판화의 기술로 시대상을 대담·예리하게 그린 화가이다.

도미에의 <세탁하는 여인>(그림21)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그리 좋지 못한 여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즉 한 여자가 힘겹게 세상을 헤쳐가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제방을 오르는 여인과 아이를 그린 것으로, 한 쪽 팔로 빨래 더미를 가득 안은 어머니는 혹시나 아이가 계단을 헛디딜까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이다. 도미에의 세심한 관찰력은 아직 키가 작아 계단을 오르기 힘든 아이가 다리를 한껏 올려 계단을 오르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도록 하였다. 멀리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을 뒤로한 채, 역광을

받아 어둡게 처리된 인물들은 얼굴의 윤곽이 생략되어 있다. 미화 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과 도시에서 소외된 여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도미에는 그가 생활했던 파리의 전 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그곳에서 본 것을 소재로 하였다. 그 중 삼등 열차는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등 열차와의 대비를 통하여 그 시대 계급간의 불균형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삼등 열차>(그림22)는 뻣뻣하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 한사람이 대단히 서민적이며 피곤해 보인다. 이처럼 도미에 역시 기차 안에서 흐름을 잘 그려내고 있다. 그가 그린 농부는 마치 오랜 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깡말라 보인다. 도미에는 삽화나 간단한 유화의 그림 등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변형시키고, 또한 참담한 분위기를 나타내어 처참한 느낌으로 물고 가기도 한다. 그는 낭만적인 심경을 가지고 감성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냉혹함과 처절함을 그림 속에 담고 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가 발전하고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어지럽다. 공증의 사무소의 급사와 사법 집행관을 했던 도미에는 누구 보다는 법조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법조를 풍자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법원을 자주 갔을 것이고 이를 풍자하여 살찌고 거만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그림에 등장했다. <대화하는 세 변호사>(그림23)역시 도미에의 풍자성이 짙은 그림이다.

(6) 장 프랑수아 밀레 [Jean Francois Millet, 1814~1875]

밀레는 도미에의 영향을 받은 화가로 1849년 프랑스 파리근교의 바르비종으로 이사한 후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의 생활상을 화폭에 담게 된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과 주변의 자연풍경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그림24)에서는 거대한 체구의 한 농부가 새로 갈아엎은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린다. 소박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은 땅의 재생능력과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다. 농부를 사회의 불안정적인 사회요소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부유층들은 그의 급진성을 공격했고, 자유주의자들은 농부와 서민의 지위를 높이는 그의 작품을 찬양했다. 쿠르베처럼 사회주의적인 주제는 보이지 않지만, 시골 농가의 풍경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농민의 삶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려 한 작품이다.

IV.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교육적 가치

1.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에 대표 작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작가들의 작품은 다른 듯 보이지만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두 사조에서 나타난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가 발생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산업을 발달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인구 증가현상이 일어난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조선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이때 부당한 여건이나 제도의 개혁을 꾀하고 신분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며 실증적 학문 연구를 주장했던 실학을 바탕으로 문화도 민족적,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프랑스 역시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특권세력이 중심이었던 문화도 시민이 주체가 되고 문화의 성격도 현실적, 실증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묘사하였다.

두 사조가 이렇듯 국가적 위기 끝에 나타난 사실은 비슷하지만, 각 사조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번의 전쟁을 겪은 후 혼잡하였던 경제는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영·정조의 관심과

후원을 받으며 그 회화적 배경을 마련하는 조선후기 풍속화와는 달리,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시작된 정치적 변동과 산업혁명 후 나타나게 된 경제적, 계층적 분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프랑스 사실주의는 이를 날카롭게 화폭에 담았다.³⁸⁾

풍속화의 작품을 보면 노동을 율동감 있는 필선과 재치 있는 구도 및 상황 표현으로 힘든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나, 사실주의 작품을 보면 노동에서 여유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 일상에 찌든 모습,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상황이 조선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교와 성리학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던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19세기 이전 화가들이 이상화 시키고 극적인 표현을 한 기독교적 성격의 그림들을 거부하고 현실을 보고 서민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풍속화와 사실주의는 풍자와 해학성을 지니게 된다.

풍속화에서 김홍도는 과장이 없는 해학성을 가지며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정서가 들어있다. 그의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며 인물의 표정이나 상황표현이 재치 있고 짜임새 있게 표현하고 있다. 신윤복과 김득신 또한 사대부의 방탕한 생활과 양반계층의 생활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실주의에서 도미에는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과 사회적 인습을 풍자를 통해 과감히 시도하였다. 삽화를 통해 황제를 풍자하고, 살찌고 거만한 변호사를 그리는 등 시대상을 반영한 해학미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 역사적 ·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현상과 서민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특권계층이나 부조리한 사람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은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

38) 고경아, 「회화에서의 리얼리즘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p.39.

다.

하지만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그림을 그린 주체는 달랐다. 풍속화의 경우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한 것도 양반이었으며, 서민의 노동하는 모습이나 생활상을 그리긴 했지만 그 서민을 그린 작가는 서민이 아닌 양반이었다. 이에 조선 말기에 오면서 중국의 문물을 찬양하던 김정희가 주도적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다른 양반들도 서민의 생활과 모습을 그리던 것을 그만두고 다시 중국 남종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서민의 정서가 담긴 풍속화는 쇠퇴하기에 이른다.

사실주의의 작가는 특권계층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었다. 서민의 생활을 표현하고 서민의 눈으로 부유층을 바라보고 비판과 풍자를 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비판을 했고, 이에 사실주의 회화는 서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서민의 지지를 받은 사실주의는 그 명맥이 유지되었으며 현대 미술에서도 사실주의적 작품이 나타나고 있다.

즉, 풍속화와 사실주의가 공통적으로 시대가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였지만, 사실주의는 후에 다른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2.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교육적 가치

앞에서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았고, 이러한 면에서 교육적 가치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가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첫째, 조선후기 풍속화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민족적 미술을 보여주고, 사실주의 회화에서는 19세기의 사회현상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작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감상하는 이에게 자주성과 주체성, 독립성과 같은 민중의식을 전달한다. 더 나아가 풍속화와 사실주의에서 보여준 민족·민중의식은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 및 주체성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교육적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미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고대로부터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의 행위와 불법성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를 미술을 통하여 표현해 본다.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기도 하고, 입체 작품을 제작해 볼 수도 있다. 요즘 한창 화제거리인 동해바다의 표기명도 좋은 예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곳에 동해라는 표기를 해보는 것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 및 주체성을 알리는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풍습, 생활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정서나 미의식 등을 알 수 있다. 일상의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전통 놀이문화와 세시풍속 등을 보며 학생들은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생활상과 풍속을 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넘치는 화면의 짜임새와 등장인물의 나이, 성별, 신분에 걸 맞는 자세나 표현 등을 정확히 잡아내고 있다.³⁹⁾

풍속화에 나타나는 전통 문화를 보고 감상하며 작품에 나오는 전통 놀이를 해 봄으로 선조들의 놀이문화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사실주의 회화에서 보이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보며 역할극을 통해 서민의 상황을 이해해 보기도 한다.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몸으로 나타내면서 표현 형식을 완성해

39) 김영숙, 「풍속화 감상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14.

내었으므로 그 조형적 특징 또한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셋째,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를 통하여 인간주의를 형성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논밭을 일구는 농부, 빨래하는 아낙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빈민, 매춘부 등 주로 힘겨운 삶에 지친 사람들이다. 또한 현실적 고통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풍자성이 강한 작품에서도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진실을 표현하려 애썼다.⁴⁰⁾ 풍속화나 사실주의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해학적이며 풍자적인 모습들을 보며, 학생들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면을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일들을 표현하는 동안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인간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두 사조의 작품을 보면서 비판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정치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비합법적 학살, 열악한 주위 환경, 자본주의의 모순, 특권계층의 횡포, 서민들의 궁핍한 삶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고발해 보며 비판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밖에 모르는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찾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 서로 토론도 하고 글이나 음성이 아닌 그림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미술 교육적으로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다섯째, 풍속화는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서 단순한 과거 기록의 범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예술성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새로운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40) 한명순, 「리얼리즘 회화의 사회 비판적 특성을 활용한 미술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56~57.

마지막으로 제시한 전통문화 계승의 교육적 가치는 공통적인 면은 아니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 전통 미술 교육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발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미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가지고 이를 발굴하며, 애호,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⁴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생활 풍습을 이어 간다는 점에서 전통문화 계승의 한 부분으로 여겨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41) 교육부,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1997, p.41.

V. 시대적 현상을 표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사실적 표현활동 및 감상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제 미술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았다.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적절한 교수방법과 매체, 학습자를 선정하고 수업지도 및 평가 시 유의점과 이에 적합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1. 교수-학습 프로그램 제안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⁴²⁾ 적용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창의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학습지도 단계, 차시별, 교수방법 및 교수매체에 따라 제안하고자 한다.

1) 학습지도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수업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각 프로그램 수업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 학습지도안을 제시해 보았다. 학습 지도

42)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외면적으로는 침착성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지적, 문화적 관심이 왕성하여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한층 발달하고 사물을 계통적, 조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미술, 음악 등 일반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고등학생은 여러 면에서 어른과 비슷하나 아직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이나 판단은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분별에 있어서 좀 뒤쳐질 뿐 정신적인 에너지는 뒤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 성에 대해 매우 자의식이 강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머리 형태나 옷 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흥미꺼리가 있다. 그러한 흥미는 음악매체, TV 등 다른 소비조직에 의하여 자극받는다.

영구적인 가치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동료, 일반적인 세계에 대한 관찰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효과적이다. 이에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는 도입, 전개, 정리라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도입단계에서 5~10분정도 주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교사는 학습 과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 그리고 현재 다루고 있는 학습과제와 전 시간이나 전 학년에 다룬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며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개단계에서는 그 학습과제에 내재한 자극을 제시하고, 학습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정확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리단계는 학습지도의 마지막 단계로서 학습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을 통해서 강화시키며,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단계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주제에 관련된 참고도서나 각종자료들을 제시하며, 다음 시간에 학습할 주제를 예고하기도 한다.⁴³⁾

따라서 학습 지도 단계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단계 과정에 따라 각 수업의 진행과정 및 그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업 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학습지도 단계에 따라 내용구성을 하였으나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시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지도 단계를 재구성 하여 차시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8차시에 걸쳐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4주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노은호, 민정일 공저, 『교수·학습방법론』, 동문사, 2000, pp.176~177.

단계	차시	학습내용	주요 활동
도입	1 차시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 회화 제시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기 -작품을 비교, 감상해 보기
전개	2~3 차시	표현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에 수업한 감상활동을 바탕으로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그대로 그려보기 -그림에 나타나는 선, 색상, 재질감 등 표현 방법을 동일하게 그려보기 -사실적 표현을 할 때 그 작품의 시대적 상황, 생활상, 작가의 의도 등을 고려하기
	4 차시	감상 및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차시에 그린 사실적 작품을 간단하게 감상하기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발표하기 -사실적 표현이 잘 되었는지 자신과 서로의 작품을 비교 · 감상하기 * 개선점을 찾고 5~6차시에 할 응용표현에 대해 간단하게 구상하기
	5~6 차시	표현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사실적 표현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작품 제작하기 -작품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주위 환경을 관찰한 뒤 재미있었거나 슬펐던 일 등 의미 있는 제재를 찾아 창조적으로 표현하기
	7 차시	심화 및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작품 속에 나타난 풍습이나 역사적 한 장면을 역할극으로 연출하기 *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의 풍속적인 면을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기

정리	8 차시	감상 및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것이 작품에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하고, 작품의 감상 관점을 정하여 서로의 작품을 비교·감상·비평하기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표현의도와 표현방법에 대하여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감상과 비평을 듣기 -다른 학생들의 작품도 감상한 후 비교, 비평하기 -서로 작품 감상 및 비평 후 개선점 찾기
-----------	-------------	---------	--

작품의 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을 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잠재된 창의력을 끌어내어 주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3) 교수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교수-학습 시 모든 교과에서 한 가지 교수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미술은 이론과 실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로 다른 교과보다 수업지도 시 교수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수방법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차시	학 습 내 용	교수법	구체적 교수-학습활동
1 차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감상(감상활동) -표현활동을 하기 전, 조선후기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을 감상하기 	강의법, 컴퓨터 보조수업, 토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는 두 사조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에 대하여 강의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 지식을 설명한다. * 컴퓨터 보조수업으로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대표 작품을 설명하여 흥미유발과 함께 추가설명을 한다. * 작품들을 감상한 후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며 토의해본다.

	<p>* 선행학습(과제) 2~3차시에 할 사실적 표현 활동에 대해 구상하기</p>	<p>스스로 학습법</p>	<p>* 과제를 주어 스스로 학습법을 기른다. 2~3차시에 할 표현활동에 할 작품을 구상하고 표현재료를 준비한다.</p>
2 ~ 3 차 시	<p>* 표현 및 제작(표현활동)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대로 표현하기</p>	<p>개별학습</p>	<p>* 1차시에 제시한 과제를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작품과 그 작품의 표현방법과 재료에 대해 발표한다. * 발표를 마친 후 학생은 교사의 조언을 더하여 개개인의 표현활동을 한다. * 개별적으로 작품을 할 때 참고작품과 표현방법 및 재료에서 모두 동일하게 표현하도록 한다.</p>
4 차 시	<p>* 감상 및 비평(감상활동) -각자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기 -서로의 작품 비교 · 감상하기</p>	<p>토의법</p>	<p>* 2~3차시에 그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작품에 대하여 토론한다. * 사실적인 표현이 주제이므로 참고작품과 비교하며 주제에 부합하게 그렸는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p>
	<p>* 선행학습(과제) 5~6차시에 할 작품 구상하기</p>	<p>스스로 학습법</p>	<p>* 개선점을 찾고 5~6차시에 할 응용표현에 대해 각자 간단하게 구상해온다.</p>
5 ~ 6 차 시	<p>* 표현 및 제작(표현활동) -작품 감상을 통해 느낀 자신의 생각을 각자의 방법으로 재구성해보기 -작품 재구성의 단계를 넘어 창조적 작품 제작하기</p>	<p>문답법, 개별학습</p>	<p>* 4차시에 제시한 과제를 먼저 검토한다. 과제를 한 학생이 발표를 하고 후, 문답법을 통해 의문점을 질문하고 답한다. *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대하여 알아본 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먼저 대표작들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재구성해 봄으로써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 재구성 작품을 한 뒤 학생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관찰한 후 응용 작품을 제작해본다.</p>
	<p>* 선행학습(과제) 7차시에 할 역할놀이 준비하기</p>	<p>연습법, 구안법</p>	<p>* 1차시에 본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작품들 중 인상 깊었던 그림 정한 후 역할놀이 할 작품 구상 후 연습해 온다. * 혼자 할 수 없는 작품들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모아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작품을 만들 수 있다.</p>

<p>7 차 시</p>	<p>* 심화 및 보충(표현활동)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 역할극 하기</p>	<p>협동학습, 역할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작품을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 * 혼자 표현하기 힘든 것은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연출해 본다. * 자신이 연출한 역할극을 다른 학생들이 맞춰보는 등 재미있는 놀이수업을 한다.
<p>8 차 시</p>	<p>* 감상 및 비평(감상활동) -각자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 을 들어보기 -서로의 작품 비교 · 감상하기</p>	<p>문답법, 토의법, 강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작품을 보며 자신이 의도한 바를 설명 하고 표현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충분한 설명이 끝난 뒤 다른 학생들의 감상을 들어 본다. 그 후 궁금한 것은 질문과 답을 오가 며 토의해 본다.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토의 해본 뒤, 자신의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 · 비평을 해본다. 비교 시 더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모든 토의가 끝난 뒤 교사는 마지막 정리를 해 준다. 사실적 표현이 든 작품의 전반적 인 이해와 좋은 작품과 미흡한 작품에 대하 여 설명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4) 교수매체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교수매체 역시 교수-학습 시 중요한 요소이다. 교수매체도 한 가지 매체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 사용할 때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에 교수매체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차시	학 습 내 용	교수매체	교수매체 선정이유 및 활용
1 차 시	<p>* 작품감상(감상활동) -표현활동을 하기 전, 조선후기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 작품을 감상하기</p>	<p>칠판, 슬라이드, LCD 프로젝트</p>	<p>* 칠판: 현재에도 학교 교실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주요한 교수매체로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의미나 역사적 사실 등 학생들에게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p> <p>* 슬라이드: 한 프레임씩 잘라 저장시키는 매체로 환등기를 통해 교사가 수집해 두었던 사실주의 작품이나 풍속화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다</p> <p>* LCD 프로젝트: 학교에서는 빔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LCD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방식과 휴대가 용이하고, 대형스크린에 투사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학생도 그림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어 원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2~3 5~6 차 시	<p>* 표현 및 제작(표현활동) -작품 감상을 통해 그대로 표현해 보는 재현적 활동을 해본다. -작품 재구성의 단계를 넘어 창조적 작품 제작하기</p> <p>* 심화 및 보충(표현활동)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 역할극 하기</p>	<p>사진, 그림, 디지털 카메라,</p>	<p>* 사진, 그림: 풍속화에서 보이는 민속놀이나 의복 등을 사진이나 그림을 보며 학생들은 재현적 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이라 하면 확대나 축소가 불가능한 책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부분만 확대하거나 강조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p> <p>* 디지털 카메라: 일반사진에서 보이는 단점을 보완해준다. 컴퓨터에 연결해 크게 볼 수도 있으며, 풍속화의 일부분을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기 용이하다. 또한 많은 양을 찍고 저장도 용이하여 제작과정을 수시로 찍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길 수 있다.</p>

4, 8 차 시	<p>* 감상 및 비평(감상활동)</p> <p>-각자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기</p> <p>-서로의 작품 비교 · 감상하기</p>	<p>파워포인트, DVD, CD-ROM</p>	<p>* 파워포인트: 마지막 감상과 비평시간에 작품 활동을 끝내고 작가의 표현의도와 표현방법, 제작과정을 작성한 파워포인트를 보며 수업을 이어 갈 수 있다. 컴퓨터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p> <p>* DVD, CD-ROM: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파일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며 제작과정이나 역할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용량이 큰 DVD에 기록해 놓을 수도 있다. 마지막 감상활동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도입단계에서 역사적 배경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한다.</p>
-------------------	--	--	---

지금까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기법이 요구된다. 풍속화와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사실적 표현을 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후에 표현방법 제시에서도, 가르치는 교사마다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업기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처럼 수업기법은 가르칠 수업목표, 수업상황, 수업과목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

2. 학습지도안

앞에서 알아본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완성된 학습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1) 1차시

학 습 지 도 안									
영역	감상활동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 일시	2007. -. -	지도 장소	교실	차시	1/8
주제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기초한 사실적·재현적 표현활동								
학습 목표	1.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사실주의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발달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2.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작품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토론할 수 있다. 3. 역사적·시대적 맥락을 통해 사실적, 재현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흥미 유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준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 인사 * 전시학습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 참고자료를 감상한다.			*문답법 *참고자료 제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전개 (40분)	* 풍속화와 사실주의 의미,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 이해 * 참고작품 감상	*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의미, 시대적 배경 및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 *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을 제시한다. (학습보고서 작성-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보고서 작성유도)	*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의 의미, 시대적 배경 및 발달 과정을 이해하며 듣는다. *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교사가 제시하는 참고자료를 감상한다. (폭넓은 사고로 작품을 이해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강의법 *토의법 * 컴퓨터,PPT를 통해 다양한 참고자료제시 *감상학습지 제공			

	*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참고자료를 감상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토의 진행 중 교사는 잠시 개입하여 내용을 정리해주고 다시 토의진행) *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감상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한다.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발표자는 대답을 하며 토의한다.) * 부족한 점을 정리하며 교사의 말에 경청한다.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 과제 및 차시 예고 *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지시한다. (본시학습과 관련 있는 문제를 제시) * 형성평가 풀이 겹 큰 흐름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 과제를 제시한다. * 본 수업을 응용해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옮길 것을 안내한다. * 각자 원하는 주제와 재료를 준비한다. * 정리정돈을 시킨다.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학습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본다. * 과제를 숙지한다. * 각자가 어떠한 표현을 할 것인지 생각하며 주제 및 재료를 숙지한다. *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학습. *형성평가지 제공 *차시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1차시 감상학습지>

【 감 상 학 습 지 】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인상 깊었던 작품의 제목은?	
* 작품 간단하게 그려보기	
* 작품을 처음 본 느낌은?	
* 작품의 의도 및 표현방법	
* 작품이 제작된 시기의 시대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작품을 감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 작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와 근거를 기록해 보자.	

<1차시 형성평가지>

【 형성 평가 】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사실적인 표현이란 무엇인가?	
* 풍속화와 사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통점: 차이점:
* 풍속화 화가 중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김홍도: 신윤복:
*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에 드러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 사실주의 회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사실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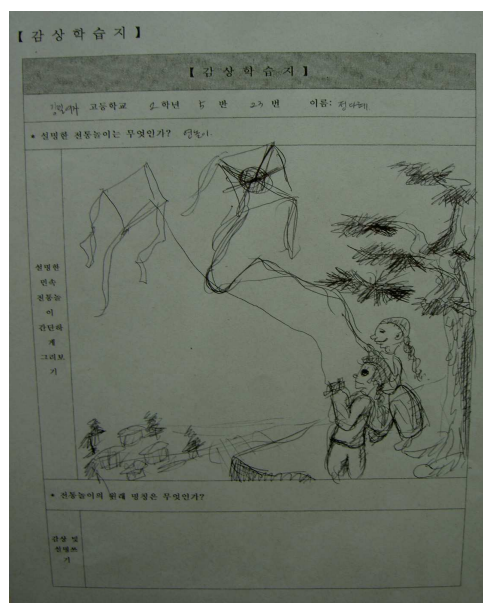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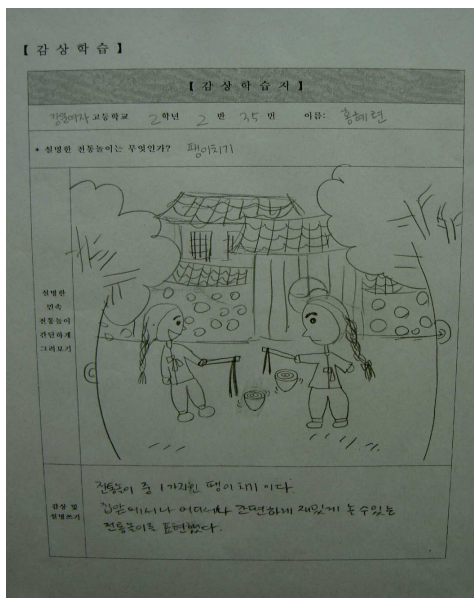
2) 2~3차시

학 습 지 도 안									
영역	표현활동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 일시	2007. -. -	지도 장소	교실	차시	2,3/8
주제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기초한 사실적·재현적 표현활동								
학습 목표	1.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의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2.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을 그려봄으로써 재현적 표현이 가능해 진다. 3. 작품을 제작하면서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 문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 사실적, 재현적 표현활동에 대한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인사 * 전시학습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문답법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전개 (40분)	* 준비물 및 과제점검 * 작품 제작	* 1차시에 제시한 과제를 검사한다. *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표현 방법 및 재료의 특성을 알려준다. * 표현활동 시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및 예시작을 제시한다. * 1차시의 감상활동 시 인상 깊었던 작품을 골라 재현해 보도록 한다. * 참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표현활동 시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과제로 제시한 사실표현을 할 작품을 검사 받는다 * 사실표현이 무엇인지 교사의 말에 경청한다. * 참고작품을 감상한다. * 감상활동 시 인상 깊었던 작품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한다. * 큰 구도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재료를 선정한다. * 여러 가지 종이 및 다양한 재료(콜라주, 몽타주)를 사용하여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 * 표현 시 궁금점은 교사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강의법 *개별학습 *컴퓨터 보조수업					
	* 작품 완성 및 마무리	* 작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강의식 *문답법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및 차시예고 *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를 제시한다. * 다음 차시에 할 응용표현에 대하여 설명한다. * 표현활동 구상, 재료 준비를 시킨다. * 정리정돈을 시킨다.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를 숙지한다. * 다음차시에 할 창작품에 대하여 이해한다. *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마무리와 차시예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위기 조성
--------------------	--	---	---	--

<참 고 작>

처음부터 풍속화나 사실주의 작품의 표현을 학생에게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표현을 하기 힘들 것이다. 수업을 할 때 교사는 풍속화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놀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간단한 감상학습지나 연습장을 꺼내어 놓고 교사가 말하는 전통놀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려보는 것도 표현활동을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작품을 크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 형식으로 부담 없이 그리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성적인 그림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그림을 본 작품에 응용하여 크게 표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3) 4차시

학 습 지 도 안									
영역	감상활동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 일시	2007. -. -	지도 장소	교실	차시	4/8
주제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기초한 사실적·재현적 표현활동								
학습 목표	1. 사실적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자신의 작품과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감상할 수 있다. 3. 자신과 다른 학생 작품의 장점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인사 * 전시학습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 문답법 *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전개 (40분)	* 준비물 및 과제점검 * 작품 발표	* 작품감상 시 필요한 준비물과 과제를 점검한다. *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참고작품과 학생이 그린 작품이 재현적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서로 토론해 보도록 유도한다.	* 2~3차시에 그린 자신의 작품을 준비한다. * 자신이 제작한 작품의 의도, 표현방법 및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 * 제작된 작품과 참고작품을 비교해 보며 표현방법 및 재료 등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관찰한다. * 다른 학생의 작품을 관찰하고 서로 토론해 본다.	* 문답법 * 토의법 * 자유로운 비교·김상과 토론을 하도록 분위기 조성					
정리 (5분)	* 작품평가 * 과제 및 차시예고 * 정리 및 인사	* 학생들의 작품을 객관적이고 서술적으로 평가한다. * 후속 학습에 대해 이해시킨다. * 정리정돈을 시킨다. * 인사	* 교사의 말에 경청한다. * 후속 학습을 숙지한다. *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 * 인사	* 문답법 * 차시예고의 이해를 돕기위해 분위기 조성					

4) 5~6차시

학 습 지 도 안									
영역	표현활동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 일시	2007. -. -	지도 장소	교실	차시	5,6/8
주제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기초한 사실적·재현적 표현활동								
학습 목표	1.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의 특징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 할 수 있다. 2. 일상의 작은 존재를 알아가며, 주변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3. 다양한(콜라주, 몽타주 등)기법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흥미 유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준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전시학습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 표현활동 할 참고자료를 감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답법 *참고자료 제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전개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및 과제점검 * 작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및 과제를 간단하게 점검한다. *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예시작을 통해 작품의 형식(콜라주, 몽타주)과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 재구성,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방법을 제시한다. * 준비해 온 재료를 통해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및 과제를 준비한다. * 참고작품을 감상한다. * 자신이 인상 깊었던 작품을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한다. * 구도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재료를 선정한다. * 여러 가지 종이 및 다양한 재료(콜라주, 몽타주)를 사용하여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법 *개별학습 *컴퓨터 보조수업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완성 및 마무리 * 과제 및 차시예고 *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과제를 제시한다. * 다음 차시에 할 역할극에 대하여 설명한다. * 표현활동 구상, 재료 준비를 시킨다. * 정리정돈을 시킨다.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 과제를 숙지한다. * 다음차시에 할 역할극에 대하여 이해한다. *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식 *문답법 *작품마무리와 차시예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위기 조성
--------------------	---	--	--	--

* 표현활동 시 다양한 표현방법을 이용하라고 하였는데, 괄호 안에 콜라주와 몽타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그리게 유도하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자신이 없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미술시간에 흥미를 잃고 표현활동을 하기 꺼려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표현하기 쉬우며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알려주기 위해 콜라주와 몽타주를 제시하였다. 사진이나 잡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오리고 붙이면 쉬우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흥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실시하게 될 때 몽타주와 콜라주만을 제시하지 말고 다른 표현방법도 제시하여 주는 것도 창의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6차시 작품 계획서>

【 작 품 계 획 서 】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구상한 작품 간단하게 그려보기	
재료 및 표현방법	
어떤 작품을 재구성한 것인지 작가의도 제시	

* 학생들이 작품 계획서를 작성 할 때 교사는 실제 작품을 제작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7차시

학 습 지 도 안									
영역	표현활동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 일시	2007. -. -	지도 장소	교실	차시	7/8
주제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기초한 사실적·재현적 표현활동								
학습 목표	1.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을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해 볼 수 있다. 2. 화면위의 기술적인 표현에서 벗어나므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흥미 유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준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 인사 * 전시학습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 표현활동 할 참고작품 및 예시작을 감상한다.	*문답법 *참고자료 제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전개 (40분)	* 준비물 및 과제점검 * 작품 제작	* 준비물 및 과제를 간단하게 점검한다. * 과제로 제시한 감상활동시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 역할극에 들어간다. * 역할극을 하기 전에 예시극을 보여준다. * 창조적, 개성적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설명을 한다. * 준비해 온 재료를 통해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유도한다.	* 준비물 및 과제를 준비한다. * 예시극을 감상한다. *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친구들과 모여 토론한다. * 주제를 정하고 재료 및 표현방식을 정한다. * 다양하게 구성한 역할극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개별학습 *협동학습 *사진,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역할극을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정리 (5분)	* 과제 및 차시예고 * 정리 및 인사	* 과제를 제시한다. (완성된 작품, 동영상, PPT, 사진 등을 제작) * 다음 차시에 할 감상활동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 정리정돈을 시킨다. * 인사	* 과제를 숙지한다. * 다음차시에 할 감상활동에 대하여 이해한다. *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 * 인사	*문답법 *차시예고의 이해를 돕기위해 분위기 조성					

<유 의 할 점>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기는 하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현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 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역할극을 할 때, 현 시점의 풍속이나 주위의 다양한 화제거리를 연출해 볼 수 있도록 교사는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할극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여기에서 모아진 하나의 의견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 합동작품을 할 때 빠지는 사람이 없이 역할분담이 잘 되었는지 교사는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7차시 역할극 작품을 위한 조사지>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p>1. 인상 깊었던 작품은?</p> <p>2. 행복했거나 슬펐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p> <p>3. 현 시대의 풍속에는 무엇이 있는가?</p> <p>4. 역할극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는가?</p>				

<7차시 역할극 계획서>

【 역할극 계획서 】	
고등학교 학년 반 조원:	
작품제목	
내 용	어떠한 작품을 연출 할 것인지 주제와 작품의 느낌, 이야기 등을 제시하고 이 작품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제시한다.
표 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표현 시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재 료	역할극을 할 때에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을 것인지, 디지털 카메라로 연속 사진을 찍을 것인지, 음악은 필요한지, 분장과 의상 등을 구체적으로 의논하도록 한다.
각자 맡은 역할	

6) 8차시

학 습 지 도 안									
영역	감상활동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 일시	2007. -. -	지도 장소	교실	차시	8/8
주제	풍속화와 사실주의에 기초한 사실적 · 재현적 표현활동								
학습 목표	1. 자신이 제작한 작품과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 · 감상할 수 있다. 2. 작품의 장점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다. 3. 미술작품의 제작, 비교 · 감상을 통해 미술품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흥미 유발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준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 인사 * 전시학습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 표현활동 할 참고작품 및 예시작을 감상한다.	*문답법 *참고자료 제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전개 (40분)	* 준비물 및 과제점검 * 작품 발표	* 작품감상 시 필요한 준비물과 과제를 점검한다. *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다른 사람의 작품도 함께 감상한다.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교 · 감상을 하도록 유도한다.	* 자신의 작품 및 준비물을 준비한다. * 자신이 제작한 작품의 의도, 표현방법 및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 * 제작된 작품 및 역할극 동영상을 보며 장점과 개선점을 서로 토론해 본다.	*문답법 *토의법 *컴퓨터 보조수업 *PPT, DVD *자유로운 비교 · 감상과 토론을 하도록 분위기 조성					
정리 (5분)	* 작품평가 * 과제 및 차시예고 * 정리 및 인사	* 학생들의 작품을 객관적이고 서술적으로 평가한다. * 후속 학습에 대해 이해시킨다. * 정리정돈을 시킨다. * 인사	* 교사의 말에 경청한다. * 후속 학습을 숙지한다. *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 * 인사	*문답법 *차시예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위기 조성					

<8차시 작품 감상 보고서>

【감 상 보 고 서】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작 품 제 목	
작 가 이 름	
작 품 이 미 지	
작 품 내 용	작품의 제작의도 및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재 료 및 표 현 방 법	작품에 쓰인 재료, 표현방법을 자세하게 적는다. 작품의 표현방법(회화, 동영상, 역할극 등) 등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나 의 생 각	작품을 보고 자신의 감상을 적는다. 또한 잘된 점과 고쳐야할 점을 적는다.

3. 수업지도 및 평가 시 유의할 점

1) 수업지도 시 유의할 점

첫째, 학습 지도 계획은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되도록 하며, 흥미, 발달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학습지도 계획은 먼저 학습자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학습자는 각자의 인지적 능력과 사물에 대한 관심, 문제의 해결능력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학습자의 개별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반영하고 발달 정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개개인의 차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전체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학습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서의 접근, 개별적인 수준에 대한 진단 등이 수업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 현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는 정보의 수집과 처리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은 시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 외에 다양한 방법의 매체활용이 중요하다. 제 7차 미술교과 수업시수는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미술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표현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 다양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 *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재료와 용구는 표현활동

속에서 통합할 수 있다.

- * 교육 과정상의 내용에서 제시된 조형요소와 원리는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정할 수 있다.
- * 표현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 * 표현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문제를 고려한다.
- * 미적체험, 감상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 표현활동 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넷째, 감상영역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 하여 활용한다.
- *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 *미적체험, 표현영역에 연계성을 고려한다.
-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하도록 한다.

2) 평가 시 유의할 점

첫째, 학생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동안 전통적인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별형 평가를 위주로 ‘점수매기기’, ‘등수 정하기’ 식의 평가에 치중했다면,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양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보다는 질적 비판을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가치를 종합적,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하나는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 교육평가의 모든 교과에서 수행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미술과 평가는 객관식과 실기시험에서 벗어나 서술형, 논술형,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평가계획을 세울 때에는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미술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학생의 성취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즉, 학생의 성취 수준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서술하여 제시하고,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한다. 미술과의 평가는 점수 위주로 등급화 된 성취 정도로 나타내기보다는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수 위주의 평가는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점수화되거나 등급화 된 평가는 평가에 있어서 지극히 상징적이며 제한된 정보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평가를 수, 우, 미, 양, 가 등의 상징으로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⁴⁴⁾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평가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미적체험: 관찰력, 이해, 적용, 발표력, 태도 등

* 표현: 표현력, 상상력, 관찰력, 재료 및 용구의 선택과 활용,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이해의 적용, 태도 등

*감상: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판단력, 발표력, 태도 등에 유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44) 권상구, 『미술과 실기교육방법론』, 형설출판사, 2002, pp.48~61 참조.

VI. 결론

인류가 지상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창출해 낸 미술 문화는 어떤 문자로 기록된 역사보다 진솔하고 동시대의 삶의 모습과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삶과 역사, 그리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미술 문화는 어떤 시대나 민족에게 삶의 기록이요 시대의 거울이기에 미술 문화를 통해 동시대의 정신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은 미술의 그 중 역사적 사실을 기록·재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미술은 한 시대나 사회의 정신과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기록하고 전달하기에, 문화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학습하는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풍속화와 사실주의 회화에서 보이는 객관적, 재현적인 그림을 통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 무관심했던 현 시대의 주위환경 및 현재의 문화를 알아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회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두 사조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 및 발달과정,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표 작품을 연구하고 두 사조의 교육적 가치를 통하여 미술과 수업 중 표현활동과 감상영역에 맞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풍속화는 실학을 바탕으로 문화도 민족적,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17~18세기 선비화가인 윤두서와 조영석에 의해서 민중생활이 회화적 소재로 등장하였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김홍도와 김득신, 신윤복 등 화원 화가에 의해 예술적 완성을 보게 되었다. 또한 그 시대의 풍습과 생활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정서나 미의식 등을 알 수 있다. 풍자와 해

학을 통해 일상의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었다.

19세기 사실주의 회화는 풍속화와 마찬가지로 영국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문화도 시민이 주체가 되었다. 문화의 성격도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묘사하는 현실적, 실증적으로 변화하였다. 쿠르베와 도미에의 작품은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과 사회적 인습을 풍자를 통해 과감히 표현하였다.

풍속화와 사실주의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점과 서민의 삶을 소재로 한 점은 공통적이거나 바라보는 관점과 나아가는 방향은 달랐다. 하지만 두 사조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발전시키며 현시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지도시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은 통합적으로 지도 되어야 한다. 풍속화와 사실주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느낀점을 표현활동을 통해 나타낸다. 인상 깊었던 작품을 똑같이 재현해 보는 표현활동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해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상 및 비평단계를 거쳐 다음 작품 활동 시 조금 더 나은 작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 시 다양한 매체와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교수매체 및 방법을 매 차시, 매 순간마다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한 가지 교수법과 매체만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유발이 어려우며,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꾸준히 다양한 교수매체와 교수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역할자가 아니라,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켜주고 잠재된 창의력을 이끌어주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 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 교사는 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최대한 서술하여 제시하고,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일도록 해야 한다.

미술교육에 대한 지도 방법이나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실적 표현 지도 프로그램 제작은 작은 시도에 불과하다. 현재 중등학교의 미술과 수업은 실기수업을 하기에 열악한 환경과 창조적, 개성적 표현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수업시수, 입시제도 시 필요한 과목이 아닌 상황에서 학생들은 미술에 흥미를 잃고 기피하는 과목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메말라 가는 감정의 정서 순화와 긍정적 가치관 형성의 역할을 맡고 있는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상구, 『미술과 실기교육방법론』, 형설출판사, 2002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박은영, 『19세기의 서양미술』, 조형교육, 2001
안휘준, 『한국의 미술과 문화』, 시공사, 2002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이원복,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광주박물관, 2002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2002
임두빈, 『한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2001
장준석,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서양미술사』, 학연문화사, 2004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활미디어, 2001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최승규, 『서양미술사 100장면』, 가람기획, 2001

<공저>

- 김원용 · 안휘준 공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4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노은호 · 민경일 공저, 『교수 · 학습방법론』, 동문사, 2000
조규락 · 김선연 공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2006

<역서>

- 린다 노클린, 『리얼리즘』, 권원순 역, 미진사, 1992
제임스 맥패스, 『리얼리즘』, 정현이 역, 열화당, 2003
캐틀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 역, 예경, 2004

<사전>

-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학원사편집국편, 『철학대사전』, 학원사, 1963

<교과서>

- 교육부,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1997
김윤배 외 3인,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대한교과서, 2007
임정기 외 2인,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교학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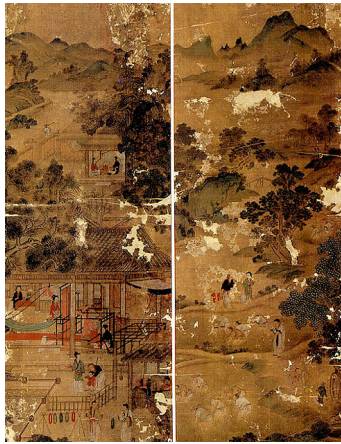
<학위 논문>

- 고경아, 「회화에서의 리얼리즘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영숙, 「풍속화 감상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을태, 「20세기 미술에 나타난 리얼리즘 회화의 계승·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손영주,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수업을 통한 표현활동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5
정진연, 「쿠르베의 리얼리즘 회화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한명순, 「리얼리즘 회화의 사회 비판적 특성을 활용한 미술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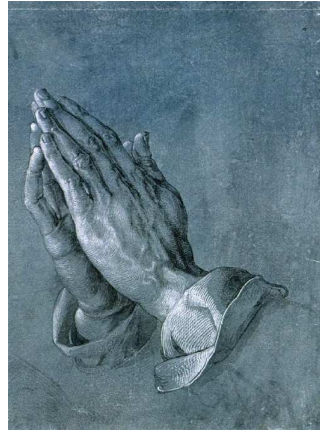
<참고 그림>



(그림 1)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림 2) <북새선은도권> (그림 3) <기사계첩>



(그림 4) <경직도>



(그림 5) <기도하는 손>



(그림 6) <자화상>



(그림 7) <1808년 5월 3일>



(그림 8) <서당>



(그림 8) <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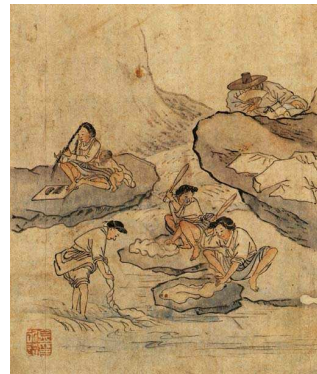
(그림10) <점심>



(그림11) <길쌈 >



(그림12) <기와이기>



(그림13) <빨래터>



(그림14) <단오 풍경>



(그림15) <파적도>



(그림16) <대장간>



(그림17)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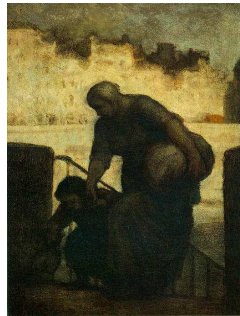
(그림18) <돌 깨는 사람들>



(그림19) <오르낭의 매장>



(그림20) <화가의 아틀리에>



(그림21) <세탁하는 여인>



(그림22) <삼등 열차>



(그림23) <대화하는 세 변호사>



(그림24) <씨 뿌리는 사람>

ABSTRACT

A Study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rt Education Program Based on Late Chosun Dynasty's Genre Paintings and the 19th Century's Realism

Shim, Eun-Ju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have been formed by the people who follow the new pattern which is based on the culture times. It has functioned the express that individual emotion, idea, religious and social ideologies as a language. So we can have the worldwide perspective through the these arts works and it is able to applied in many fields with related our life. In this arts culture have been communicated with the traditional trends through the various culture experience and wisdom, and it fertilized our life.

From the ancient cultivated society it represents a certain times pattern with the of media and it has been important function as a historical event. Due to the fact that the artistic works that reconstruct and document are more effective than any other field, in explicating each period's various aspects and historical changes, and historical stories.

This study is for suggest the arts expression and emotion activity which is accompany with the society pattern and aesthetic consciousness has been functioned represent and records.

In the introduction, it describes the purpose and study contents. And in chapter 2, theory background is based on the various function and relation times and social relations.

Chapter 3 it is studied post Chosun dynasty and 19th century realism, investigates the temporal backgrounds of such artistic trends and the processes of their development, explores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two trends respectively, it made the students understand the times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ing.

Chapter 4 is studied educational value through the previously marked explain and realism pictures and tell the differences and same aspects between the those two times pictures.

Chapter 5 is studied th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to have the effective arts class through two arts. Through the compare and analyse the picture pattern and realism works and then discuss the topic with the students. After that, studied one of represent of each works. After that, suggest the study syllabus through the applied expression and role play. In conclusion, it suggests the arts educational direction which is able to motivate the students interests is related to creation and individualism.